

#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선미) 이필레 공인석(김명숙) 김영애 김정연A(이선분) 김창길(백경자) 맹지혜(임기빈) 박은숙(정양학) 배세영(이경순) 석형기(이희순B) 안금자 오귀숙 유호근(손명화) 윤정호(유옥자) 이기자 이난수(방원식) 이상희 이월숙 이한웅(김순옥) 조규례 조규영(윤혜란) 주경덕(이경자) 지상건(이복현) 최정규(김미영) 황영옥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선미) 이필레 김경엽(손정아) 김명숙(공인석) 김순옥(이한웅) 김영애 맹지혜(임기빈) 방현옥(신영신) 손명화(유호근) 안금자 오영순 윤영준(박진숙) 이경순(배세영) 이기자 이난수(방원식) 이복현(지상건) 이월숙 이윤옥 이한웅(김순옥) 이향교 이희순B(석형기) 에스더여전도회

♠ **감사헌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레 김경엽(손정아) 김병울(이영숙) 김정연B(감준식) 김종익(박애순) 김춘화 박부웅(최귀남) 박순자(이동수) 박종삼(이명원) 백성원(안지영) 석형기(이희순B) 성미영(박영식) 송순량(원형진) 여운희 윤병호(양영옥) 윤정자(최성현) 이미지 이복현(지상건) 이종문 이한철(박희영) 전순봉 채명엽(서시철) 현영란 최기훈(정계숙) 하세현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강은미 김민서 김민성 김민준 김준구 박민서 박서광 박순자 박준홍 박희영 방복순 백경자 송백현 심순옥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미지 이상희 이소는 이승애 이아른 이옥남 정승현 정해지 주성탁 최귀남 최선미 황영옥 무 명

♠ **월정헌금**

## 주간 성경연구

29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고린도후서 6장 1절 ~ 13절			
월요일	고린도후서 6장14절 ~ 7장1절	목요일	고린도후서 8장 1절 ~ 15절	
화요일	고린도후서 7장 2절 ~ 7절	금요일	고린도후서 8장 16절 ~ 24절	
수요일	고린도후서 7장 8절 ~ 16절	토요일	고린도후서 9장 1절 ~ 9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준 강영성 김병울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옥 장명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대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김제호		
	전 도 사		이필레		
	교육전도사		김선희		
찬양대	지 위 자		할 쉐 루 야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온 · 에 덴 : 최원지 엔 젤 :		
	반주자	오르간	심혜운		
		피아노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최유경 이상희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 리 스트		김안나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 국 : 김정숙 이 집 트 : 김신숙 수 리 남 : 안석렬 이성옥 A X 국 : 김해월 미 국 : 김다니엘 A X 국 : 이분옥 미 국 : 최옥희 모 잠 비 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멕시코 : 김홍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줄거운교회, 가나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말교도소, 영등포시찰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서울남노회 미래 자립위원회.				

2022. 07. 10.

시련의 한복판에서	
옴기 3장 1~10절	설교: 이진우 목사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마음의 상태나 생각을 누군가에게 토로할 수 있는 것은 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인생은 고난과 어려움에서 그 마음을 토로하는 자를 결코 만족시킬 만큼 도울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이야기만을 들어줄 뿐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쏟아내어 품고 있는 자신의 상태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잠시정간의 자신의 위안이 될 뿐이며, 때로 약한 자들은 그것을 빌미로 더욱 어려움과 낙심시키는 일로 더욱 상황과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지금 옴은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들을 쏟아 놓습니다. 그 생각이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옴의 모습은 시련 앞에서도 믿음을 견지했던 굳건한 모습과는 분명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일어나는 고통을 표현하는 옴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대하고 다루어야 하는지, 또 그 마음과 생각을 과연 누구에게 토로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옴은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옴의 고백은 먼저,

1. **고통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 일곱 주야의 침묵이 지난 후 옴이 먼저 친구들을 향하여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그 때에 죽지 않았음을 하소연합니다. 지금 옴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사단이 원하는 바처럼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옴은 자신이 태어난 날과 모태에서 잉태되던 날이 멸망했더라면 좋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옴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것은 결국 그의 부모를 저주한 것도, 하나님을 저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련 중에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도 지금 옴의 이러한 일들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옴의 탄식은 고난을 통하여 온 영과 육적인 고통을 정직하게 대면한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자기 안에 있는 슬픔이나 절망 같은 감정들을 나약한 사람들이나 느끼는 것으로 여기며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자들은 마음의 상태를 외면하다가 결국 더 깊은 낙심과 절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옴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까지 자신이 현재 당하는 시련이 고통스러운 것임을 그대로 인정하며 마음의 상태와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거나 평생 모든 재물을 잃기도 합니다. 때로는 견뎌왔던 육체에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두려움과 슬픔을 성도들은 정직하게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들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깨달으며,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은 어찌면 **교만했던 자**야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며 고난 앞에 겸허해지는** 것이요, 이때가 성도들에게는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알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 뜻과 내 생각 그리고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달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은혜의 시작이 될 것입니 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겸손의 자리에서 우리를 당신의 긍휼로 만나 주시며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 주시며 회복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 **고통을 솔직히 표현해 하는 것입니다.**

- 옴은 내면에 존재하는 고통을 정직하게 대면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탄식하며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옴은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괴로움을 억누르며 참기보다 하나님과 친구들 앞에서 입을 열어 토로했습니다. 아마도 옴은 타는 듯 한 답답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탄식하듯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좀처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표현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당할 것을 염려하여 자기 일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무조건 참고 인내하며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감추고 그저 묵묵히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렇지 못하면 믿을 없는 것이라 치부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의 애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조국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접하고 절망과 낙심, 엄청난 고통에 빠졌습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에레미야 20장 18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에레미야 역시 자신의 태어난 일을 저주하면서, 자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고생과 슬픔을 보며 인생을 부끄럽게 보내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인생에서 절망과 낙심을 예외 없이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부모를 찾아와 울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아 토로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격한 마음의 상태와 생각까지 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할 때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통을 쏟아놓는 이야기를 듣기 거절하고 야단치며 돌려보내겠습니까? 단지 자신의 고통과 고난이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기에 때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끝까지 자식편이고 자식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합니다. 이렇듯 연약한 인생의 부모도 그러한데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상실한 마음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며 피난처가 되시고 큰 환난 날에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슬픔과 낙심, 깊은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감정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며 이해하십니다. 옴이 고난 속에서 한탄하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듯이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의 고통을 쏟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SINCE 1975

No. 48 - 29

2022. 07. 17.

## 대한예수교장로회

# 성 현 교 회

##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치료의 광선을 비추소서” [말라기 4장 2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 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b>담 임 목 사</b> Senior Pastor	<b>이 진 우</b> Yee, Jin Woo
---------------------------------	------------------------------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 페 이 지: www.sunghyeon.or.kr

오전예배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전 11시 30분

목도

(Silent Prayer)

사회: 임 만 순 장 로

인도: 이 진 우 목 사

인도: 이 진 우 목 사

할렐루야찬양대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갈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찬송가 291(통413)장

다 갈 이

(Praise)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대 표 기 도

[1부]김 종 진집사

(Prayer)

[2부]강 영 성장로

[3부]임 만 순장로

성 경 봉 독

욥기 3장 11~26절[구약P.763]

인 도 자

(Scripture)

찬 양

[1, 2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다 갈 이

(Anthem)

[3부] 내 노래 되신 주(Mary McDonald)

할렐루야찬양대

설 교

욥이 겪는 심리적 혼란

이 진 우 목 사

(Sermon)

헌 금 봉 헌

[1, 2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갈 이

(Offering)

[3부] 주 안에 있는 나에게(찬송가370장)

주 니 어 셸 라

새 신 자 환 영

다 갈 이

(Introduce new comer)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찬송가 310(통410)장

다 갈 이

(Praise)

아 하나님의 은혜로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예 배 후 찬 양

[1,2부]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갈 이

(Marching on Praise)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 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오후 3시

목도

사회:

성 시

시편 65편 13절

간 구

찬 양

찬송가 434(통491)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기 도

성 경 봉 독

디모데전서 1장 12~20절(신약 p.337)

찬 양

설 교

은혜 받은 자의 감사와 찬양

광 고

찬 양

찬송가 445(통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축 도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찬 양

기 도

[다음주:전순봉권사]

성 경 봉 독

마태복음 4장 1~11절(신약p.4)

설 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최종 준비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분당	영 아 유 치 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10:00 분당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분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0:00 로뎀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분당	청 년 부	주 일 오후 2:00 청년부실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분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분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분당	전 도 특 공 대	목요일 오후 2:00 교회식당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오전 5:00 분당		